

피아니스트,하프시코디스트 안종도

"깊은 내면, 힘찬 명료함, 부드러운 터치, 정교한 다이내믹까지.. 그는 단숨에 모든 관객을 음악으로 빠트린다."

- 독일 음악 평론가 하이디 지겔 (Ruhr Nachrichten, 2014)

"뛰어난 유연성과 지혜가 겸비된 그의 연주는 믿을 수 없이 비루투오조적이다. 새로운 것을 단시간에 받아들여 음악의 새로운 캐릭터를 확립하는 그의 연주는 놀라운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

- 하프시코디스트, 지휘자 리차드 이가

피아니스트이자 하프시코디스트인 안종도는 2012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롱 티보 크래스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 및 최고 독주상, 최고 현대작품 해석상을 수상하며 유럽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하였다.

리 레이놀즈, 대럴 양, 요엘 레비, 마테우쉬 몰레다, 정치용, 김광현 등의 지휘자들과 함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함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상트페테르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소피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키엘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다수의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었으며, 국내에서는 KBS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원주시립교향악단 등 다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이어 오고 있다. 특히 정치용의 지휘로 인천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은 국내 평론단의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2016년에는 금호아시아문화재단의 라이징스타로 선정되었다.

파리 샬 가보, 오페라 드 파리, 비엔나 콘체르트 하우스, 뮌헨 가슈타익, 함부르크 라이츠헤레, 함부르크 엘브필하모니, 하노버 라디오 필하모니, 상트페터스부르크 필하모니 그랜드 콘서트홀 등 유럽 주요 공연장에서 수차례 연주무대를 가졌으며, 그의 연주는 프랑스 라디오, 덴마크 국영라디오, 북독일 국영라디오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된 바 있다. 또한 잘츠부르크 여름 음악제, 프랑스 레 피아노 폴리에 음악제, 독일 마이센 피아노포르테 음악제, 독일 쉐로스 루드비히스부르크 음악제, 러시아 뮤지칼 올림푸스 음악제, 스위스 제네바 뤼플랑쥬 클래식 음악제, 루마니아 조르주 에네스쿠 음악제 등 유럽 각국을 대표하는 음악제에 지속적으로 초청되어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19-20시즌 독일 함부르크 엘브필하모니 및 도쿄 토폰홀에서 현지 평론단의 호평과 함께 데뷔 독주회를 마쳤고 남아공 최고 콘서트 시리즈인 요하네스버그 뮤직 소사이어티 100주년 기념 독주회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20년, 독일 뤼벡에서 쇼팽 4개의 발라드를 위한 음반을 녹음 하였으며, 스타인웨이 스피리오 아티스트로 초청되어 함부르크 스타인웨이 본사에서 스카를라티와 라모의 작품을 녹음하여 출시한 바 있다. 또한 2020 아트센터인천 마티네 콘서트 호스트로서 4회에 걸친 안정적인 진행과 피아노 독주, 실내악,

가곡 그리고 하프시코드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네이버 TV로 생중계되며 국내 관객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바로크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독일 브레멘 국립음대에서 카르스텐 로프 교수에게 하프시코드를 사사하였고 현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하프시코디스트 겸 지휘자 리차드 이가에게 고음악을 사사하고 있다.

연주 이외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안종도는 음악칼럼니스트로서 이코노미조선 매거진에 '유럽의 도시와 음악'을 주제로 정기 칼럼을 5년 가까이 기고하고 있으며, 각 예술 장르의 융합을 모토로 독일 함부르크에서 북독일 클랑아카데미 (Norddeutsche Klangakademie)와 공연 전문 프로덕션인 Studio Philip An을 설립하여 아티스트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2021-2024 시즌에 Studio Philip An의 창의적 문화융합 프로덕션 3부작을 기획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작곡가, 안무가, 미술가, 철학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발전시키고 그 가치를 관객들과 나누고자 한다.

2021년에는 원주시립교향악단과 교향악축제 최초로 하프시코드를 협연하였으며, 하프시코드와 피아노를 한 무대에서 같이 연주하는 예술의전당 단독 리사이틀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현재 안종도는 독일 함부르크를 중심으로 피아니스트, 하프시코디스트, 칼럼니스트 그리고 음악 페스티벌의 CEO 등 다방면에 걸쳐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 3월부터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